

광양시 어린이 물놀이터, 가족 친화 명소로 자리매김

2만여 명 이용, 만족도 97%... 가족 단위 방문객 86% 차지

광양시가 운영하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터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대표 가족 친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올여름 『마동근린공원 꿈빛물놀이터』와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총 21,346명이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에서 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 도심 속 여가·휴식 공간, '마동근린공원 꿈빛물놀이터' 신규 개장

광양시는 올해 여름 마동근린공원에 새롭게 조성한 '꿈빛물놀이터'를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

꿈빛물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영역 ▲유아 놀이영역 ▲사계절 놀이영역 등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로, 그 외 기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상시 개방된다. 또한 낮은 수심 유지와 탄성 포장 바닥,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했다.

물놀이터 운영 기간 동안 총 8,466명이 방문했고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재방문 의사를 밝힌 비율도 96%에 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자연 속 수변 휴식 공간,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3년 연속 인기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운영되며 광양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자연 속 수변 휴식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했으며, 총 12,880명이 다녀가 지난해(8,896명)보다 44.78%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19%는 관외 이용객으로,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가 광양시를 대표하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광양시민 무료 개장 ▲어린이풀 확충 ▲풀장 그늘막 설치 ▲모바일 앱 'MY광양'을 통한 사전 예약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어린이 생존수영 교실과 연계해 안전교육과 물놀이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답했고, 재방문 의사 또한 99%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는 시설 규모에 맞춘 철저한 안전관리, 깨끗한 수질 유지, 체계적인 시설 운영으로 매년 이용객들에게 즐거움과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걸음마다 물드는 순천만의 가을, '순천만 씨워킹' 가을의 시작을 남파랑길과 함께해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무더운 여름철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순천만 씨워킹」을 오는 9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씨워킹」은 코리아둘레길 순천 구간인 남파랑길을 따라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며 보고 느끼고 나누는 치유형 걷기 프로그램으로, 지난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운영을 재개하는 9월 초에는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탁 트인 바다와 드넓은 갯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갈대밭이 청량한 기운을 전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활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을로 접어드는 순천만은 황금빛으로 물든 여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루고 철새들이 날아드는 풍경이 어우러져 걷는 즐거움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첫째 주에는 장산마을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하프코스, 셋째 주에는 와온해변과 화포해변을 잇는 61 폴코스과 화포해변과 구룡역을 연결하는 62 폴코스가 번갈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남파랑길은 바다와 갯벌, 갈대밭이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라며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으며 순천의 특별함을 느끼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 「순천만 씨워킹」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참가신청은 순천시 바로예약 누리집 또는 관광과(061-749-5809)를 통해 가능하다.

순천/정성인 기자

전남도 나주시가 기업 성장과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기업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1:1 소통 창구 '기업애로 바로톡',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원스톱 서비스, 조달 물품 등록 컨설팅, 기업 및 기관 친화거리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나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속도 낸다

애로사항 청취,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친화거리 조성 등

련해 가고 있다.

기업친화도시 조성은 기업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장을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시는 먼저 카카오톡 채널 '기업애로 바로톡'을 개설해 기업과 담당 공무원을

1:1로 매칭, 기업 불편과 건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도내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현장 방문 없이도 공장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설립 단계까지 원스톱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전남 최초로 '조달청 우수물품 지정 컨설팅'을 추진해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공공관로 확대를 돕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 기관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 친화거리'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관내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 기관 홍보주간'과 '지역 기업 제품 구매 캠페인'을 운영해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참여자 모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8월 25일부터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정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으로 총 6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장기 과정은 지난 4월 모집을 마감했으며, 이번 모집에는 3개월 운영되는 중기 과정 참여자와 1개월 단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중기(3개월) 과정은 8월 말일까지 모집하며,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관련 활동도 가능하며 창업,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진로를 직접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설계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모집 대상은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체 운영, 교육, 직업훈련 등의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무안군 조례상 청년으로 정의되는 만 45세 이하의 군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이용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243-1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제공

영암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불법주정차 등 체납차량 집중 단속

영암군이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집중 단속해 조세정의 실현, 성실납세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와는 달리, 생계형 차량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부 납부나 영치 예고 등으로 차별화된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다음, 영암군 건설교통과에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그 전에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인 관리로 선진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 시스템(ARS) 142-211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교통행정팀(061-470-2460, 2043, 2245)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고흥군, 군수와 온 군민 소통 채널 '365 군민소통폰' 개통

제안, 건의, 고충 등 언제든지 문자메시지 보내면 군수가 답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군수와 온 군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365 군민소통폰」(010-2112-3650)을 개통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365 군민소통폰」은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정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 생활 속 고충사항 등을 전송하면, 군수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검토 및 조치 시, 2일 이내 문자로 답변하는 24시간 상시 소통 시스템이다. 고흥군은 그간 '군수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365 군민소통폰」은 군수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소통폰은 연중무휴 24시간 운

영되며, 문자메시지 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은 군민들의 이해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컬러링(통화연결음)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운영 목적과 취지를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군수가 직접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하며, 평일 기준 2일 이내 답변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및 주말·공휴일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평일에 답변하게 된다. 또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부서가 직접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365 군민소통폰은 군민 누구나 쉽게 군정에 대한 의견을 군수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창구"라며, "군수가 직접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